

“성탄 신비를 관상할 때 목자들처럼
단순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.
목자들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,
명예와 호평을 추구하지 않습니다.
단지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.”

Sac. F. Albionè



바로 가족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, 스승이며 목자이신
예수님께 세상에 당신 복음의 단순함을 비추어 줄 수 있도록
비천하고 가난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.

성탄을 축하하고
평온한 2014년을 맞이하길 빌며

Sr Marta Finotelli
총원 공동체